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자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정치사업

지금 온 나라의 새해공동사업과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김철로동계급의 편지가 접하고 불도가나마냥 끓어번지고 있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리는것. 이것이 올해의 총적인 투쟁방향이며 김철로동계급의 편지정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송풍기로 로안에 바람을 불어넣어 불길 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듯이 정치사업의 뒤편바람을 일으켜 당이 시퍼준 대고조의 불길 이 모든 부문, 모든 초소마 드로써 더욱더 타오르게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공동사업에는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투쟁에 철저히 끌어들이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분출시켜나가는 송풍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분출시켜나가는 송풍기, 올해공동사업과 김철로동계

급의 편지를 높이는 가슴마다에 접한 각지의 당일군들은 년 초부터 송풍기의 역할을 더욱 높여 모든 부문, 모든 초소마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 한걸음이 떨쳐나섰다.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각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정치사업의 뒤편바람이 정초부터 세차게 휘날리고있다.

경공업과 농업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동전선이다. 긴장속령양성사공장, 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소비품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튼튼한 작전을 펼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년초부터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평양시당위원회, 선의주시당위원회를 비롯한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모든 단위들에게 인민들의 호영을 받는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리원시 미루, 재령군 삼지강, 통천군 신암, 태천군 은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비롯한 농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당의 총지향방향을 두면농사방침, 갑자농사혁명방침과 농농사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대흥단군을 비롯한 각지 농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주체적인 육종체계를 세우고 실리주의의 원칙이 구현된 현대적인 축산, 양어, 과일생산기지를 키워나가는 내내 하기 위한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올해공동사업을 높이 받들고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으로 첫 전투를 벌려왔다.

4대선행부문의 인민경제의 기반차이며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판관적인 고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송풍기로 로안에 바람을 불어넣어 불길 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듯이 정치사업의 뒤편바람을 일으켜 당이 시퍼준 대고조의 불길 이 모든 부문, 모든 초소마 드로써 더욱더 타오르게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감한 공격정신 내려친다

만경대구역 칠골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김철의 로동계급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접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장엄한 전진에 떨쳐나선 만경대구역 칠골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더 큰 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운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긍지를 안고 10월의 대추전장에 당당히 들어설 그날을 위해 새해 첫 전투부터 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이들의 뜨겁한 열기로 하여 농장별은 세차게 끓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떡은 튼튼을 원만히 푸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선차적으로 나서서 꺾어입시다.』

이 나라가 조국해방의 완회로 돌았던 주체34(1945)년 10월 칠골에 불붙는 첫 평도자육을 세기 때로부터 여러차례 농장을 찾으신 아버지 김철을 향하여 애를 써서 농장을 위한 열정을 다하셨던 아버지가 계시는 만경대구역 칠골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첫 전투부터 기세를 올리고있다.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북방의 사나운 날씨를 이겨내야 할 정보도 습득하고 기쁨을 낼 때만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열정을 더 많은 거름을 생산

세해공동사업에서 제시된 전

투쟁과업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대추전장인 신흥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첫 전투부터 기세를 올리고있다.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북방의 사나운 날씨를 이겨내야 할 정보도 습득하고 기쁨을 낼 때만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열정을 더 많은 거름을 생산

감사준비를 착실히

농장에 있는 거름의 질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고있다. 농장에서는 밭, 보리밭에 물거름을 골고루 섞어 잘 짚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하고있다.

특히 제3작업반의 농업근로자들은 온도보정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가면서 떨어진 불리를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농사준비를 착실히

농장에 있는 거름의 질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고있다. 농장에서는 밭, 보리밭에 물거름을 골고루 섞어 잘 짚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하고있다.

특히 제3작업반의 농업근로자들은 온도보정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가면서 떨어진 불리를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편지들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집중의 기적소리가 울리며

철도운수부문에서

김철의 로동계급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접하고 승리의 신소리가 떨쳐나선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근로자들이 집중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도운수부문 일군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짐을 제때에 실어다 주어야 합니다.』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은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총공세의 해인 올해에 철도운수에서 전례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해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책임일군들은 공동사업과업 관철을 위한 전투작전을 대담하게 펼쳐고 새해벽두부터 각 철도국과 철도공작들에 원호를 집중적으로 실어보내준대 이어 수송근로자들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특히 수송지휘를 맡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송풍기로 로안에 바람을 불어넣어 불길 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듯이 정치사업의 뒤편바람을 일으켜 당이 시퍼준 대고조의 불길 이 모든 부문, 모든 초소마 드로써 더욱더 타오르게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세운 석탄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할 열의가 새해에 들어와 첫 열흘동안에 수송실적을 높였다.

정진철도국과 함흥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근로자들도 당장전 65톤을 승려자의 대추전으로 빛내이기 위해 집중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정진철도국의 일군들은 기관차와 화차들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해 영동철도수송전투를 활발히 벌여나가고있는 여러 지역들에 나가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함흥철도국에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검덕광업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대한 화물수송에서 집단적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다. 이곳 수송근로자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화답하여 높은 목표를 세우고 견인장보다 더 많은 짐을 끌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강명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송풍기로 로안에 바람을 불어넣어 불길 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듯이 정치사업의 뒤편바람을 일으켜 당이 시퍼준 대고조의 불길 이 모든 부문, 모든 초소마 드로써 더욱더 타오르게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세운 석탄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할 열의가 새해에 들어와 첫 열흘동안에 수송실적을 높였다.

정진철도국과 함흥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근로자들도 당장전 65톤을 승려자의 대추전으로 빛내이기 위해 집중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정진철도국의 일군들은 기관차와 화차들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해 영동철도수송전투를 활발히 벌여나가고있는 여러 지역들에 나가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함흥철도국에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검덕광업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대한 화물수송에서 집단적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다. 이곳 수송근로자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화답하여 높은 목표를 세우고 견인장보다 더 많은 짐을 끌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강명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송풍기로 로안에 바람을 불어넣어 불길 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듯이 정치사업의 뒤편바람을 일으켜 당이 시퍼준 대고조의 불길 이 모든 부문, 모든 초소마 드로써 더욱더 타오르게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세운 석탄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할 열의가 새해에 들어와 첫 열흘동안에 수송실적을 높였다.

정진철도국과 함흥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근로자들도 당장전 65톤을 승려자의 대추전으로 빛내이기 위해 집중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정진철도국의 일군들은 기관차와 화차들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해 영동철도수송전투를 활발히 벌여나가고있는 여러 지역들에 나가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함흥철도국에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검덕광업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대한 화물수송에서 집단적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다. 이곳 수송근로자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화답하여 높은 목표를 세우고 견인장보다 더 많은 짐을 끌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강명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송풍기로 로안에 바람을 불어넣어 불길 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듯이 정치사업의 뒤편바람을 일으켜 당이 시퍼준 대고조의 불길 이 모든 부문, 모든 초소마 드로써 더욱더 타오르게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대화의 불길높이

세우고 대중의 기술능수준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있다. 최근년간 기술개건투쟁을 적극 벌려 농업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린 군영에군인시료공장에서 그 생활력이 발휘되도록 하는데 힘을 집중하고있다. 군안의 수지이용공공장, 화학공장 등 여러 공작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일군들의 선진사대의 맛이 내기 일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

당장전 65톤을 맞은 올해에 다 시한한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새해공동사업에는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이 구현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인민생활에 보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모든것을 위하여 우리 당의 투쟁한 정치신조가 있고 어머니당으로서의 사명이 있다.

인민을 위한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에는 어머니수령님과 영애는 장군님의 애민헌신의 승호인 리념과 불멸의 업적이 함축되어있다.

인민위전의 과우명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 생활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셨다.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이끌어온 년대기마다에는 혁명과 건설의 전방적요구와 인민들의 당당한 생활상수요를 옮겨 결합시켜나갈수 있는 사회주의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인민경제발전계획들에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밝혀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평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업적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자립경제는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할수 있는 위대한 사회주의경제로 발전하여오게 되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영애의 마지마시기까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모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

것을 다 바치신 어머니수령님의 한평생을 영연히 잊지 않을것이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었다. 강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복두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로 이끄시면서 이 땅에서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나는 로동당사대의 일대 전진기를 펼쳐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압박책과 혹독한 자연재해가 겹쳐들던 어렵한 시기에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변함없이 실시되고 『고난의 행군』이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되는 일순간, 지난해에 조국청사에 투기할 변이 되고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인민이 령도를 받들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새로운 변명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당을 따라 간고한 시련의 길을 헤쳐온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지향이며 의지이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을 대고조전군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의 빛나는 구현이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은 당의 혁명적성격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당의 활동방향과 원칙은 당의 성격과 투쟁목적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의 대표자, 철저한 공로자이다. 이것은 마치와 낫과 못이 이르게저우 우리 당마크가 응원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에게 수조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것보다 더 중요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

것을 다 바치신 어머니수령님의 한평생을 영연히 잊지 않을것이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었다. 강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복두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로 이끄시면서 이 땅에서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나는 로동당사대의 일대 전진기를 펼쳐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압박책과 혹독한 자연재해가 겹쳐들던 어렵한 시기에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변함없이 실시되고 『고난의 행군』이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되는 일순간, 지난해에 조국청사에 투기할 변이 되고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인민이 령도를 받들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새로운 변명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당을 따라 간고한 시련의 길을 헤쳐온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지향이며 의지이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을 대고조전군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의 빛나는 구현이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은 당의 혁명적성격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당의 활동방향과 원칙은 당의 성격과 투쟁목적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의 대표자, 철저한 공로자이다. 이것은 마치와 낫과 못이 이르게저우 우리 당마크가 응원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에게 수조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것보다 더 중요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

것을 다 바치신 어머니수령님의 한평생을 영연히 잊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온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의 결정적담보

우리 겨레는 지난해에 통일대국력량의 단합된 위력으로 반통일세력을 압도하면서 자주통일운동을 떠밀어온 공적을 안고 희망찬 새해 2010년을 맞이하였다.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실은 6. 15 북남공동선언발표 10주년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년이 되는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하에 민족의 단합을 실현함으로써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였다. 공동사실에 제시된 조국통일과업은 우리 민족이 뜻깊은 올해를 통일운동성공과 더불어 자주의 통일을 활로로 열어 나가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과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혹을 관철하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공동사실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자주통일의 날을 앞당겨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나라의 근부리의 정례로 우리 민족의 언변의 힘과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통일된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할 때입니다.》

새해공동사실은 온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의 결정적담보라고 지적하였다. 민족의 단합은 자주적운영체제의 보검이다. 온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야 민족의 수월한 조국통일위업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노력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는 민족자주위업이고 우리 겨레가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민족공동의 과제이며 최대의 애국 위업이다. 따라서 그것은 민족의 단합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의 단합문제는 오늘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대결자세와 반통일행동으로 하여 지금 북남관계는 극도의 위기에 처해있다.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으로 하여 과대에 처한 북남관계의 현실을 《제대로 된 남북관계》라는 터무니없는 꾀명으로 미화하면서 새해에도 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할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반통일분자들은 핵문제에 해결을 북남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대결을 계속 조장하고있으며 6. 15 판문단체들은 물론 각계 민간단체들의 동족과의 협력과 교류를 가로막고 통일에국인사들을 교묘악업에 걸어 담는대로 탄압하고있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도 여전히 첨예하다. 미국은 내조선적시정세를 변함없이 추구하면서 반공화국 《제제》소동과 북침전쟁도발행동을 강화하고있다. 미국과 그와 야합한 남조선호전세력의 반공화국도발소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서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는 흐려지고있다.

사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굳게 단합하여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에 맞서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력있게 떠밀고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지금

이야말로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조선민족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해야 할 때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대단결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하다. 반만년을 거쳐 대승하면서 형성된 민족의 단일성, 높은 자주의식, 우수한 민족적기질은 민족대단결의 기초로 된다. 우리 민족이 반세기이상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다고 하여 민족성마저 이질화될 것은 아니다. 언어와 문화생활의 공통성,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강한 정신은 우리 민족의 의식에 깃들여 온 것이니 결코 갈라져있지만 반드시 하나로 굳게 뭉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6. 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는 대단결의 기치이다. 공동선언발표후 조국통일운동에서 일어났던 커다란 전변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하에 화합하고 단결하여 투쟁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이다. 조국통일운동사는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하에 단결할 때 못헤낼 일이 없으며 반드시 통일의 종착역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나라를 통일하겠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공표한 민족대단결선언이다. 우리 민족이 자주권과 존엄을 찾아내고자 해도 그렇고 부강번영을 이룩하고자 해도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개별적계급, 계층의 이익이 민족의 이익보다 클수 없다. 공동선언들을 관철하는 것이 민족공동의 리

익을 옹호하는 길이며 그것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만 실현할 수 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려면 북과 남, 해외의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인민들사이의 대화와 연대연합을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모든 계급과 계층, 단체들이 자기 울타리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하에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를 활발히 하고 서로 굳게 연대연합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가 제의이다. 누구나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주의주장을 뒤로 미루고 조국통일을 위해 확대연합에 파견되어 나가야 한다.

해내의 각계각층이 서로 확대하고 협력하는 과정은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으며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고 강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된다.

우리 민족안에서 화해와 단합을 바라지 않는 자들은 한층도 안되는 반통일보수세력뿐이다. 민족적단합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에 저항해나서는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단죄구판하여 그들이 민족안에서 배겨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해와 단합의 힘이 커질 때 반통일세력들은 맥을 추지 못할 것이다. 화해와 단합으로 북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호상 신뢰를 두터이 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해공동사실의 호소대로 민족적단합을 굳건히 함으로써 6. 15 공동선언발표 10주년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년이 되는 올해에 반드시 조국통일운동의 전향적국면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김정욱

대결을 고취하는 군사적도발

남조선호전세력이 새해벽두부터 군사적도발행동에 광분하면서 정세를 긴장격화로 몰아가고있다.

지난 1월 1일 새벽 최전열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남조선 1야전군은 그 누구의 《침투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목밑에 《침투 및 국지도발대비》 훈련이라는것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훈련은 불의의 발발신호에 따라 1야전군단하의 무력이 총동원된 가운데 대항훈련식으로 감행되었다고 한다. 1야전군사령관이라는 자는 훈련에 대해 그 무슨 《완벽한 대비태세를 보여주었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이며 국도의 대결전열을 고취하였다.

남조선호전정권들이 우리를 걸고 《침투》나, 《도발》이니 하고 떠벌며 대규모적인 전쟁장단을 벌려놓은것은 절대로 스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긴장격화소동으로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려는 고의적인 도발이며 북침전쟁연습의 총포소음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지향을 억누르려는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의 개선은 시대의 요구이며 대세의 흐름이다. 우리 겨레는 약화된 북남관계가 새해에는 어떻게 하나 개선되기를 바라고있다. 누구도 이 시대적흐름과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는 반통일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지금 북과 남에 필요하건 총포소동이 아니라 관계개선을 추동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이다.

그러나 남조선군부세력은 새해벽두부터 북남관계개선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도발적인 전쟁연습소동을 감행하였다. 그 목적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대결을 조장, 격화시키자는 데 있다.

이런 전쟁연습을 놓고보면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전쟁연습은 우리의 면전에서 바로 최전열일대에서 새벽부터 싸이핀소리가 요란히 울리

고 전체 야전군부대가 들불이데는 속에 감행되었다. 그 누구의 《침투가능성》이라는 전쟁장단명분도 반통일적이다. 남조선호전정권이 잊고 있는 《침투가능성》에 대해 광고하며 그에 대비한 전쟁연습소동에 광기를 부린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우리에게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불어넣고 반통일기운을 가르막기 위한것이다.

민족적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며 서로 마주앉아야 할 대화의방을 겨냥하여 도발적인 불장난놀음을 벌려놓은 남조선군부호전정권들의 처사야말로 참을 수 없는 망당이 아닐수 없다. 그들이 이번에도 도발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은것은 남조선당국이 새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남대결과 북침전쟁의 길로 계속 갈달음치려 한다는것을 공공연히 시사한것이나 같다.

북남관계는 민족의 운명, 조국통일의 전도와 관련된 중대사이다. 남조선군부세력이 이에 역행하는 호전적행동을 부리는데 대해 온 겨레가 분노해고있다.

사태는 북남관계개선의 길이 열리지 않고있다는 것이 누구때문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실증해 준다.

북남관계의 과국이 새해에도 지속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리로울지 없다.

대결전정소동으로 북남관계를 계속 악화시키는 것은 조선반도의 정세변화도, 저들의 앞날도 내다볼줄 모르는 자들의 어리석은것으로밖에 될 것이 없다.

그러나 남조선군부세력은 새해벽두부터 북남관계개선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도발적인 전쟁연습소동을 감행하였다. 그 목적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대결을 조장, 격화시키자는 데 있다.

이런 전쟁연습을 놓고보면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전쟁연습은 우리의 면전에서 바로 최전열일대에서 새벽부터 싸이핀소리가 요란히 울리

은정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것을 호소

로씨야 원동고룡관과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가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실을 지지하여 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새해공동사실에 접한 로씨야 원동고룡관과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일군들이 비롯한 동료들이 커다란 격정과 승리의 신념에 넘쳐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재로조선에서 강성대국의 지분을 두드리는 놀라운 사변들이 편이 일어날 특기할 것이라고 성명을 지지하였다. 특히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

의 성과적발사와 주체생산경제의 완성, CNC기술의 세계적 단계를 넘어나갈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조선민족의 자랑이 되고 갈수록 되고 하면서 성명은 이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력사적인 6. 15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지난 10년간은 북남공동선언들이 가장 중요한 통일대과이며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6. 15 통일선언의 민족정신이고 유일무이한 리념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시대흐름에

북남관계개선은 시대의 요구이며 대세의 흐름이다. 따라서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고 반통일세력을 주장하며 통일운동을 나서는것은 결코 죄로 될수 없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북남관계개선을 반대하며 반통일운동을 말살하려는 파쇼당정권이 계속 강행하고있으며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지난해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그 무슨 《보안법》 위반혐의를 들먹인 조국통일범 민족헌법(범민련) 납북분부 편집국장을 불구속기소하는 파쇼적행동을 감행하였다. 파쇼적행동은 그가 《리적단체》인 범민련에 가입하여 북의 주장을 《공조》하고 그 무슨 《공작원》과 《통신원》을 가졌다느니, 《리적표현물》을 보낸 혐의가 있다느니 하며 이런 혐의를 저질렀다. 이보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더러우니 《간첩장사》를 조지하였던 한 대결장사에게 중형을 들먹였다.

역행하는 파쇼폭압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북남관계개선을 반대하며 반통일운동을 말살하려는 파쇼당정권이 계속 강행하고있으며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지난해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그 무슨 《보안법》 위반혐의를 들먹인 조국통일범 민족헌법(범민련) 납북분부 편집국장을 불구속기소하는 파쇼적행동을 감행하였다.

파쇼적행동은 그가 《리적단체》인 범민련에 가입하여 북의 주장을 《공조》하고 그 무슨 《공작원》과 《통신원》을 가졌다느니, 《리적표현물》을 보낸 혐의가 있다느니 하며 이런 혐의를 저질렀다. 이보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더러우니 《간첩장사》를 조지하였던 한 대결장사에게 중형을 들먹였다.

동아를

동아를 잘살아 한다. 더우기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정당한 활동을 가로막는 《보안법》과 같은 반통일악법들이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이들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시대를 기대한다.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는 지난해 약화된 북남관계가 올해에는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새롭게 단결하고 통일을 통해서 새로운 장이 펼쳐지기를 바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그에게 저촉되는 반통일 폭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민족과 시대에 맞서 수월 없는 엄청난 죄악으로 된다.

북남관계개선을 추동하는

북남관계개선을 추동하는 것 못할정대세의 분위기를 찬물을 끼얹으며 반통일폭압에 열을 올리는 당국의 책동을 남조선인민들은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본사기자

화해와 단합을 위하여

남조선각계 단체들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은 세차게 지펴올려 외세가 없는 통일된 새세상을 반드시 안아올 줄은 의지에 넘쳐있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맹 납북분부는 조국통일의 대강이 며 리적표인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을 전면부흥하고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려온 현 《정권》에 대한 민족의 분노가 지난 한해동안 활화산처럼 폭발하였다고 하면서 반통일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평화와 통일로 향한 시대적 흐름은 절대로 멈춰설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남북공동선언실현전에는 6. 15 공동선언발표 10주년과 4. 19봉기 50주년, 5. 18광우항쟁 30주년을 맞은 올해에 이중양태는 《우리 민족끼리》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밝혔다. 단행은 이를 위해 전민중이

단결된 힘으로 남조선강경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보수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맹 납북분부는 현시기 범민, 반독재투쟁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과제라고 하면서 전제 전보진영의 편대연합을 강화하여 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6. 15 공동선언실현전 납북취원외와 남조선의 진보연대는 민족반역의 무리들이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 교류활동에 계속 교여말것이라고 경고하였다.

6. 15 공동선언실현전 청년학생연대는 남북공동선언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분별의 원용인 미군을 몰아내며 통일의 항에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에서 민족의 선봉대가 될것을 다짐하였다. 《한총련》은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앞길에 휘황히 밝혀주고 있다고 하면서 남북선언들을 고수,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춘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전민족의 대단결을 주장

제미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 편집진이 1일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운동을 벌려나갈것을 주장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같은 지난 한해동안 해외의 동포들이 남조선의 반통일보수세력에 타격을 가하고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을 고수, 리행하기 위한 즐거운 투쟁을 전개하여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지난해의 투쟁을 통해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주장

민족은 온 겨레가 힘을 합칠 때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고 글은 밝혔다. 같은 조국의 통일을 반드시 자주, 평화로운,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이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온 겨레가 서로 힘을 합쳐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을 고수, 리행하기 위한 즐거운 투쟁을 전개하여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보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더러우니 《간첩장사》를 조지하였던 한 대결장사에게 중형을 들먹였다. 파쇼적행동은 그가 《리적단체》인 범민련에 가입하여 북의 주장을 《공조》하고 그 무슨 《공작원》과 《통신원》을 가졌다느니, 《리적표현물》을 보낸 혐의가 있다느니 하며 이런 혐의를 저질렀다. 이보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더러우니 《간첩장사》를 조지하였던 한 대결장사에게 중형을 들먹였다.

본사기자

폭력과 대결로 한해를 보낸 정치권을 비난

남조선의 《KBS》방송이 폭력과 대결로 한해를 보낸 정치권을 비난하였다.

방송은 정치권이 지난 한해에 대결로 시작하여 대결로 막을 내렸다고 조소하였다. 《폭력국회》의 명을 쓰고 있는 《국회》에서 《미디어관련법》과 《세종시건설법안》, 《4대강정비사업안》 처리문제 등을 둘러싸고 《법민정정》이라는 류태없는 총돌사태가 여러차례 벌어졌다고 방송

은전하였다.

방송은 지난해 7월 《한나라당》이 《민주당》과의 치열한 대결과 린투속에 《미디어관련법》을 강행하려한것이 대표적실례라고 지적하였다. 《세주특별자치법》과 《4대강정비사업안》을 강행하려한 것 한것때문이었다고 하면서 이로 하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국회》에서는 년말까지 《대결과 폭력, 합의의 강행처리》가 끊이지 않는 무효가 아니다.》는 모호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논쟁의

본사기자

공크리트장벽을 폭로

로씨야의 소리방송이 지난해 12월 29일 조선반도 납북지역에 있는 공크리트장벽의 범죄적성격을 폭로단죄하였다. 방송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1979년 12월 남조선당국이 위해 조선반도 납북지역에 령전의 마지막물자로 불리우는

공크리트장벽을 폭로

공크리트장벽이 생겨났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 장벽을 이른바 《반남침차단물》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사적자본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공크리트장벽은 조선반도를 갈라놓고있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납북지역의 240km 구간에 구축되었다.

당국의 기만적궤변을 비난

이 되어있다고 하면서 신자유주의략탈과 대미중심으로 일관된 당국의 궤변은 하나도 귀담아들을것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당국의 기만궤변에 신물이 난다고 하면서 평평은 전제 민족이 사대매국, 풍안판관, 민생과란에 여한이 없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막을 수 없는 통일운동의 대하

을 비롯한 각계 통일애국세력들을 당국의 파쇼적탄압행동에 단합된 힘으로 맞서서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하면서 통일운동을 굴렸음이 밝혀나갔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난해 남조선인민들의 조국통일열망과 의지가 얼마나 강렬하였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신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반통일세력을 강하게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리념따라 나가는 겨레의 통일기운은 그 누구도, 그 어떤 폭압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증명해주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투쟁의지와 신념은 더욱더 굳세어지고있다. 얼마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맹(범민련) 납북분부는 단체결집을 19회에 걸쳐서 기념집회를 가졌다.

범민련 납북분부와 여러 정당,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을 비롯한 각계층이 참가한 집회에 사 발인자들은 북남공동선언이야말로 반드시 리행해야 할 통일의 대강이라고 하면서 모든 진보력량이 단결하여 당국의 반통일행동에 전면적인 반격을 가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민주로총도 지난해말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에

통일애국세력의 단결을 강조

남조선의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리강실이 1일 독재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통일애국세력이 단결할것을 호소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같은 지난해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진보세력들이 힘을 합쳐 독재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섬으로써 민족의 힘이 얼마나 강아졌을지 보여주었다고 지적하였다. 독재 《정권》이 올해에도 폭압정치를 실시하며 친세력정책과 동족대결정책을 일삼는다면 체제질서는 돌이킬수 없는 쓰러진 참태판이라고 글은 경고하였다. 글은 독재세력을 청산하고 조선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각계층 민중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실업위기 악화

6일 남조선 《KBS》방송이 남조선에서 실업위기가 날로 악화되고있는데 대해 전하였다. 방송은 《통계청》이 지난해 11월까지의 실업자가 81만 900명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실제 실업자는 그의 4배이상에 달하는 329만 900명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2003년 이후 최고의 기록이라고 하면서 방송은 실업자를 대부분이 직업언어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 있다고 개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본사기자